

호사다마? 잘 나가는 K-배터리, 소송 등 난제 풀어야 '1등'

(好事多魔·좋은 일에는 탈이 많음)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화재 리콜 비용만 최대 1조원 전망
SK, 배터리戰 합의금 2.8조
삼성, 화재로 신뢰성 타격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부터 전기차 배터리 화재까지 연이어 악재를 맞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전부 주요 순위를 차지했다. SNE리서치가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78개국 전기차 판매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1위에 올랐다.

또,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주요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 같은 K-배터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10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오창공장.



삼성SDI 기흥사업장.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제1공장.

(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는 3년째 이어져 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해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도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외려 당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신뢰성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 24일 현대자동차는 2018년 5월 이후

15건의 화재가 발생한 코나EV(전기차)와 함께 아이오닉, 전기버스 일렉시티에 대해 배터리 전량 교체를 단행키로 했다.

해당 리콜(시정조치) 대상 차량에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 중국 장쑤성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탑재됐다.

국토부는 LG에너지솔루션 난징공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의 셀 제조 불량(음극탭 접힘)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지목했다. L

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셀이 연이은 전기차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셀 제조 불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이 같은 악재들로 인해 자금적인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서 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조8000억원 수준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

상된다. 또, LG에너지솔루션도 현대차 코나EV의 전면 리콜 결정으로 책임 비중을 따져 최대 1조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삼성SDI도 당사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서 불이 난 만큼 신뢰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삼성SDI 배터리가 탑재된 BMW의 PH 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포드의 쿠가 PHEV는 화재로 인해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허창수 회장, 전경련 2년 더 이끈다

전경련 "민간 경제계 이끌 책임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이 임기를 이어간다.

전경련은 허회장을 제38대 회장으로 추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여러 기업인들과 재계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금까지 어려운



전경련은 26일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상황에서는 전경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허창수 회장을 재추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은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 전경련을 잘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경련과 민간 경제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미래 혁신인재 육성... 5년간 25兆 쏟는다

과기정통부 '과기인재 기본계획' AI 기반 수학학습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선도학교 2배 확대

정부가 초·중등생의 수학·과학 역량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수학학습 지원시스템을 내년 구축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초·중등 학생의 디지털 기초소양 제고를 위해 'AI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지난해 247개에서 올해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별 AI교육 기준'도 올해 마련해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5년간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5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대전환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을 비

전으로,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과학기술 인재규모 지속 유지·확대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또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청년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의 틀과 14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초·중등 학교와 대학·연구기관·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협업 체계인 '스타브릿지 센터'(가칭)를 내년에 구축·운영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대비와 수학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수학인재양성연구센터'(가칭) 신설을 검토한다.

과학영재 교육 기회도 확대해 상반기 내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등에 도입한다. 올해 KAIST 영재교육원 주도로 온라인 수·과학 심화강의를 개발해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공계 전공 관련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

해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연수 등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도 강화한다.

청년 연구자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박사후연구원의 자유로운 실험실 이동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1년에 200여명, 1인당 연 1억 3000만원 내외에서 최대 5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이 과학기술인으로 활약하기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생애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W-브릿지'(가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을 양성해 사회진출을 유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패러다임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 기본역량 확보가 긴요한 시점이고, 과학기술인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인재의 기초역량을 튼튼히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경총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야"

모호한 규정 손질, 가이드 마련
지원 사업비, 세제 혜택 등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촉구했다.

경총은 24일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해석과 적용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보완 입법 등 지원 방안 등 3가지 분야 94개 항목이다.

경총은 조사 결과 모든 조문에서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기업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모호한 규정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법률해설서와 매뉴얼, 가이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보완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업들의 뜻도 전달 사항에 함께 포함했다. 1년 이상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하고, 사망자 범위를 1년 이내 2명으로 수정하는 등이다. 또 시행 이후 예방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도 요구했다. 지원 사업과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다.

/김재웅 기자 juk@

LG AI 연구원, 세계 최고 학회서 첫 결실

'설명하는 AI', '연속학습'
설립 두 달 만에 논문 2편 발표

LG AI 연구원이 설립한지 2달여만에 성과를 냈다.

LG AI 연구원은 국제인공지능학회(AAAI)에 논문 2편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AAAI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학회다. 매년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로, 발표된 논문은 각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논문은 토론토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설명하는 AI'와 '연속학습'을 주제로 완성했다. 각각 인공지능이 결과를 도출한 과정을 설명해 주고,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미래 기술을 구현하



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아직 개척되지 않은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AI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설립된 후 처음으로 성과를 냈다. 이훈락 미국 미시건대 교수 등 인재를 영입하고 토론토대와 서울대 등 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조성하며 AI 원천기술 확보 및 난제 해결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사진)은 "AI 기술 연구를 고도화해 고객들이 직접 기술 발달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젊은 AI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2023년까지 AI 전문가 1,000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